

다산포럼



정근식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지난 10월 31일, 오키나와의 슈리성(首里城)이 전소되었다는 비보가 전해졌다. 1989년부터 올해 초까지 30년간 정성을 기울여 복원한 류큐왕국의 흔이 불타 버린 것이다. 슈리성 곳곳에 화화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었던 여러 장식들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오키나와 주민들은 아연실색했고, 많은 한국인들도 10여년 전 남대문 화재를 떠올리며 안타까워했다.

필자는 슈리성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기 직전인 1999년 처음으로 이곳을 방문했는데, 가장 놀랐던 것은 슈리성 남문의 '예를 지키는 나라'라는 표현이었다. 이 수레몬은 조선의 송례문을 떠올렸다. 슈리성 정전에는 '중산지도'(中山之土)라는 칭나라 강희제가 하사

아, 슈리성

한 편액이 걸려 있었다. 중화질서를 나타내는 상징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던 것이다.

류큐는 조선이 건국된 지 14년 후인 1406년 쇼(尙)씨에 의해 통일 왕국으로 출발하였고, 슈리성은 이 왕조의 궁궐로 지어졌다. 조선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침략을 받은 지 17년 후인 1609년, 류큐 왕국은 지금의 가고시마에 근거를 둔 사쓰마번의 침략을 받았다. 사쓰마번은 중국과의 중계무역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얻기 위하여 이 조그만 왕국을 배후에서 조종하였다. 류큐는 중국과 사쓰마번에 양속되는 처지가 되었다. 근대의 파도가 류큐 왕국을 덮친 것은 1853년이다. 미국의 페리 제독은 상해를 떠나 류큐의 나하에 입항했고, 이듬해인 1854년 미국과 통상조약을 맺었다. 이것은 류큐가 형식적으로 독립 왕국임을 나타내는 징표였다.

류큐의 불행은 메이지 유신 이후에 다가왔다. 1872년 일본은 중국 황제가 했던 것처럼, 류큐 국왕을 변방으로 책봉하였다. 그로부터 7년 후인 1879년, 일본은 이른바 류큐 처분을 통하여 번을 폐지하고 일본의 한 지방임을 나타내는 현을

창설하는 '폐번치현'을 단행하였다. 류큐는 오키나와가 되었으며, 류큐의 국왕은 귀족으로 강등되고 인질로서 도쿄로 강제 이주를 당하였다. 이 시기를 상세하게 연구한 류큐 대학의 나미하라 쓰네히로(波平巨男) 교수는 '류큐 처분'이라는 용어는 일본의 입장만을 반영한 것이라 했다. 보다 객관적으로 말하려면 조선 병합이라는 용어처럼, 류큐 병합이라고 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본은 류큐를 병합한 후, 1894년 청과의 전쟁을 통하여 대만을 식민지화하였고, 1905년 러시아와의 전쟁을 통하여 조선의 외교권을 강탈하였다. 이어 영친왕을 볼로로 잡아갔고, 결국 조선을 병합하였다.

일본은 만주 침략과 함께 내부의 식민지를 보다 공고한 제국의 일부로 만들기 위해 황국신민화를 추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중요한 역사 유적들을 문화재로 지정하여 식민지 주민들의 자존심을 세워 주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일본은 슈리성을 1933년 국보로 지정했고, 조선총독부는 그 이듬해에 남대문을 보물 1호로 지정하였다. 하지만 슈리성의 언덕 부지는 일본군 제6사단의 사령부가 차지하여 태평양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는 참혹한 것이었다. 1945년 5월, 미군은 오키나와 상륙작전을 시작하면서 함포 사격으로 사령부와 슈리성을 완전히 파괴되었다. 류큐의 흔을 담은 문화재들이 사라진 것이다. 이 사령부의 위안부 시설에서 발굴된 사쿠(콘돔)가 나중에 한국의 '나눔의 집' 전시관에서 전시될 줄을 누가 알았으랴.

미군 점령하에 오키나와에는 류큐 정부가 성립하였고, 폐허가 된 슈리성 터에는 류큐대학이 들어섰다. 1958년 수레몬이 복귀되어 정전의 복구를 기다리게 되었다. 일본의 잠재 주권만이 인정되고 실질적으로 일본과 분리된 오키나와는 베트남전쟁의 와중에서 1972년 일본으로 '복귀'하였다. 1979년에 류큐 대학이 이전 후 오키나와 현과 일본 정부는 슈리성 재건계획을 세웠다. 1989년부터 본격적인 복원이 시작되어 1992년 정전과 남전, 북전 건물이 완공되어 공원이 되었고, 관광객을 맞이 시작하였다. 2017년에는 285만 명이 이곳을 찾았다.

지난 이십여 년간 슈리성은 동아시아 평화의 상징이었다. 이를 언제 다시 찾을 수 있을까? 두 손 모아 바라는 복원을 기원한다.

교단에서

'털털털'



김진우
일신중 교감

무리 손질 때문이었다. 아버지는 짚신을 다 삼은 후에 빠져나온 잔털 자루라기를 손질하여 매끄럽게 마무리하였다. 그러나 아들은 짚신을 만들고 나서 후련하다는 뜻이 바로 맘에 들고는 자라에서 일어난 것이다. 특별한 기술도 아니요, 더구나 자식이니 불러다가 마무리가 중요하다고 가르치면 될 것을 무슨 대단한 비법이라고 털털털 하고 죽다니.

한옥을 지을 때 구들은 달밤에 놓는다. 어른들의 말씀도 있다. 개자리 만들기, 불길기 지나가는 고래의 폭과 깊이 등 오늘날 과학적 용어로 대류현상과 베르누이 법칙이 적용된 구들 놓기 기술은 절대로 공유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동네 일꾼은 물론 자식과 함께 일을 하더라도 구들장 나르거나 흙일은 낮에 하게 하고, 실제 구들 놓기는 비법이 노출될까 봐 모든 사람들이 돌아간 후 밤에 달빛 아래 혼자 구들을 놓았다고 한다.

학교에 일하러 오신 몇 분들을 보면서 떠오른 옛 이야기들이다. 아버지 입장에서, 자식의 관점에서 느끼는 차이가 있겠으나 어떤 일이고 마무리를 잘하는 분들을 보면 돌보이고 기억에 오래 남는다. 작년에 개교 이후 처음으로 소나무 전정

을 하였다. 소나무 전정은 상당한 기술이 필요하다. 쉽게 손낼 수 없기에 옷자라고, 뭉치고, 기술어린 소나무가 많았다. 전문가 부부가 와서 소나무를 손질하는데 손길이 지나가면 그렇게 깔끔 수가 없었다. 따라다니면서 몇 가지 물어보았으나 "소나무 전정은 이론보다는 오랜 경험이 필요하다"며 웃을 뿐이었다. 군더더기를 잘라 낸 정갈한 소나무가 교정을 기쁨 있게 했다. 그런데 가지치기가 끝난 후 전정보다 더 깔끔한 일이 있었다. 여기저기 자른 가지들이 수북하게 쌓여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논의하고 있는데 이들 부부는 타고 온 1톤 트럭에 흩어진 가지를 싣고는 선한 미소를 남긴 채 떠난 것이다.

일마 전, 이 부부가 학교에 왔다. 일 년 만에 다시 찾아와 죽은 나무는 없는지, 심한 전정이나 병충해로 약이 필요한지 확인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이다. 경비 절감이 문제가 아니라 하루 일한 인연을 해를 넘겨서까지 이렇게 마무리하니, 소문이 나서 이 분들을 학교에 모시려면 미리 미리 예약하지 않으면 어렵다. 이발소나 미장원에서조차 정성스런 마무리 손길에 단골이 되는 경우가 많다. 좋은 끝맺음은

끈끈한 여운으로 상대방을 당기는 힘이 있다

학년이 끝나고 허물처럼 남긴 빈 교실을 돌아보면서도 느낀 점이 많다. 깨끗하게 청소가 된 교실을 보면 온기가 남아있는 것 같고 일 년 동안 학급 학생들과 담임 선생님이 한마음이 되어 잘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버려진 책이며, 청소할 곁에 쌓인 우산, 흐트러진 책상, 찢판 낙서 가득한 교실은 들어가면 '바쁜 와중에 그러려니' 하면 서도 아쉬운 반응이 나온다. 학년 초에 잘 꾸며진 학급도 좋아 보이지만, 학년 말에 깔끔하게 마무리된 빈 교실의 학생과 담임 선생님이 더 가슴에 남는다.

연말을 앞두고 숨을 고르는 11월이다. 모든 분야가 빠르게 진행되고 소멸되는 요즈음 지난 일상을 돌아보기가 쉽지 않다. 신세 진 분들께 한 통의 전화나 두툽한 삼겹살에 소주 한 잔, 아니면 진한 추어탕 한 그릇으로 우리들의 한 해 생활 마무리 '털털털'로 하면 어떨까. 개인적으로는 오랜 교직 생활을 하면서 달빛 아래 전혜줄 비법도 없지만 내손으로 뜯어내고 싶은 마무리 털이 한두 개 있어서 단골이 되는 경우가 많다. 좋은 끝맺음은

기고

'하늘과 땅 사이'



김태종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연구실장

사실적으로 그려 내던 그도 80년 5월을 비껴가지는 못했다.

한국 예술가들이 80년 5월을 기점으로 심미적 관점보다 예술의 사회적 역할을 더욱 더 고민하기 시작했듯이, 5·18의 현장을 목격했 그는 그날의 참상과 기억을 그려 내기 시작한다. 5·18 직후 붓을 잡아 몇 번이나 캔버스를 뜯어낸 끝에 완성된 그림이 한국의 게르니카 '하늘과 땅 사이 1'(1981)이다. 서울 신세계백화점 미술관에 전시된 이 그림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이 작품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슬픔, 가장 큰 절규, 가장 큰 비원이 녹아 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것이 '하늘과 땅 사이'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천지지만 만물지중 유인회귀'(天地之間萬物之中惟人最貴: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것 중에 오직 사람이 가장 귀하다). 그 후 그는 '하늘과 땅 사이'를 연작으로 4편까지 그려 내었다.

1995년 안티비엔날레만장전('하늘과 땅 사이-4')을 끝으로 연작을 중단했던 강연군 화백은 5·18 40주년을 앞두고



강연군 작 '박용준의 피'(왼쪽)와 '하늘과 땅 사이 1'



'하늘과 땅 사이-5'를 선보일 예정이다. 오는 11월 7일 목요일 오후 4시, 광주 금남로에 위치한 역사적 장소 5·18기록관에서 신작 일곱 점을 공개하는 것이다. 이 작품을 역시 80년 5월 광주 이야기다. 이날 기록관에서는 작가로부터 작품에 얽힌 사연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도 마련된다.

작가는 그림을 5·18 사진이나 영상을 보고 그린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간직해 왔던 감정과 인상을 바탕으로 그려냈다고 한다. 5월 27일 새벽 YWCA에서 산화한 시민군을 떠올리며 그린 '박용준의 피' 같은 작품이 그것이다. 이들 작품에는 지금까지도 우리의 눈앞에서 어른거

리는, 아무리 잊으려고 애를 써도 사라지지 않는, 학살의 참상들과 그날의 기억이 담겨 있다.

기억은 어떻게 그림이 되는가. 사람들은 대개 가장 절실했을 때를 기억하고, 화가는 자기가 목도했던 바로 그 시대를 그린다. 멀리 있는 것을 그리지 않고 늘 주위에 있는 것을 그렸던 사람. 사회과학책이 아니라 길바닥에서 시대의 아픔과 역사를 배우고 그렸던 사람. 그가 바로 강연군 화백이다. 동시대에 살면서 그린 그의 생각을 들어 보고, 게다가 그의 새 그림까지 만나 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이는 또 얼마나 다행스럽고 행복한 일인가.

社說

5년째 표류 흑산공항 이젠 정부가 결단을

흑산공항 건설을 위한 국토교통부의 공항 계획 변경안 작성이 지연되면서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가 내년으로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대책 사업이 지역 개발과 환경 보전 논쟁에 휩싸여 5년째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은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흑산공항 건설과 관련 환경성과 안전성 및 경제성에 대한 심의 서류를 보완해 올해 안에 제출할 계획이다. 하지만 보완 서류가 제출되더라도 회의 보름 전까지 일정을 위원들에게 통보해야 하는 등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 일정과 환경부 검토 기간을 고려하면 연내 심의는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도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국토부가) 내년에야 보완서를 제출할 것 같은데 그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이 "흑산공항 건설이 제주2·울릉공항에 비해 지지부진하

다"며 "차라리 흑산도를 국립공원에서 제외할 의사가 있느냐"고 질의한 데 대한 답변이었다.

흑산공항 추진은 서울까지 가려면 꼬박 일곱 시간이나 걸리는 흑산도 주민의 교통난 완화와 관광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지난 2011년 정부가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계획'에 반영하고 2015년에는 1833억 원의 예산을 들여 1.16km의 활주로를 건설하는 기본계획까지 고시했지만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에 막혀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가 확정된 국가사업에 대해서는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면제하는 등의 대책을 수립해 정부 부처 간 협의와 조정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남도와 신안군이 추진 중인 공항 개발 면적만큼 국립공원 대체 지역을 제공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섬 주민의 기본권과 지역 발전도 보장할 수 있도록 이젠 정부가 결단을 해야 할 시점이다.

멧돼지 사체 처리 허술 돼지열병 확산될까

지난달 15일부터 최근까지 이 지역에서 수렵·포획된 야생 멧돼지는 전남에서 305마리, 광주에서 7마리 등이다. 하지만 전남 지역 자치단체들은 환경부의 기본적인 '야생 멧돼지 처리 매뉴얼'조차 따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적으로 야생 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연일 발견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로 인해 돼지열병의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동안 수렵·포획된 멧돼지들은 '유해 야생동물 포획 의무 처리 지침'에 따라 식용으로 이용하거나 상업적으로 거래·유통되지 않도록 수렵인 자체 자가 소비, 지역 주민 무상 제공, 매립 등의 방법으로 처리해 왔다. 하지만 환경부는 최근 "전국 모든 지역에서 수렵·포획된 멧돼지 사체의 자체 소비를 금지하고 '야생 멧돼지 사체 처리 매뉴얼'에 따른 사체 처리를 당부한다"는 지침을 일선 자치단체에 보냈다.

이전에 바뀐 매뉴얼에 따르면 사체 매

립을 위해서는 깊이 1m 이상의 구덩이를 판 뒤, 폐사체를 폐수 유출 방지용 비닐 위에 놓고 흙과 생석회를 번갈아 덮어야 한다. 사체 조각의 경우에는 전문 조각장이나 이동식 조각 장치 등을 이용해야 한다. 야생 멧돼지 한 마리당 조각 비용은 20만 원, 매몰 비용은 100여만 원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남도는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환경부의 지침을 무시한 채 멧돼지 사체 처리를 민간 포획단에 맡기고 있다. 반면 광주시는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 처리하고 있는데, 멧돼지 사체 처리 예산이 아직 확보되지는 않았지만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재난안전기금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남도 또한 감염된 야생 멧돼지가 식용 등으로 유통될 경우 바이러스 확산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 멧돼지 폐사체 발견 시 광주시처럼 지정 장소에서 매뉴얼에 따라 처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40대 남성 K씨는 평소 가까운 데는 자전거를 타고 오간다. 주말에는 광주전편을 따라 회순 나릿재 옛길까지 갔다가 되 돌아오기도 한다. 고갯길은 차량 통행이 금지돼 있기에 자전거를 타기에 좋다. 그렇게 그는 자전거 타기를 통해 나름 하체 단련 등 건강을 챙긴다.

순천시를 찾은 젊은 여행자라면 '온누리'라는 이름을 붙인 무인 공공 자전거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손쉽게 자전거를 대여받고 반납할 수 있는 터미널이 시내와 관광지 등 49곳에 설치돼

있다. 회원 가입 후 대여 받거나, 1일 이용권으로 자전거를 사용할 수 있

다. 자전거를 타고 바람을 가르며 통풍 자전거 도로를 따라 달리다 보면 색다른 순천 여행의 묘미를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200여 년 전 발명된 자전거가 개인과 사회를 서서히 변화시키고 있다. 개인의 건강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도시의 '틈새 교통수단'으로 자리를 잡아 가고 있는 것이다. 이쯤하여 '공공 자전거'. 요즘을 내고 일정 시간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공유 시스템이 도시의 교통 문제와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

고 있는 것이다.

공공자전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서울을 비롯해 순천시, 대전시, 창원시 등 전국 20개 도시에 육박한다. 이름도 '따름이'(서울)와 '타슈'(대전), '어울랑'(세종), '누비자'(창원), '페달로'(안산), 'U bike·여수랑'(여수) 등 재미있는 게 많다. 시민 공모를 거쳐 확정된 광주시 무인 공공 자전거 이름은 '타랑개'이다. 내년 3월경부터 삼무지구에서 시범 운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바이크 라이더들도 증가하고 있다. 광주일보와 자전거사랑전국연합회

자전거를 사랑할 수 있

다. 자전거를 타고 바람을 가르며 통풍 자전거 도로를 따라 달리다 보면 색다른 순천 여행의 묘미를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200여 년 전 발명된 자전거가 개인과 사회를 서서히 변화시키고 있다. 개인의 건강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도시의 '틈새 교통수단'으로 자리를 잡아 가고 있는 것이다. 이쯤하여 '공공 자전거'. 요즘을 내고 일정 시간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공유 시스템이 도시의 교통 문제와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

고 있는 것이다.

/송기동 문화2부장 song@